

#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을 통한 광화문 광장의 공간적 모순 분석

장누리\* · 김영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I. 서론

광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만쿠조에 따르면 광장의 기능은 장터, 문화, 예술, 의식, 군중집회, 개인 간의 교류와 관련이 있다(Mancuso, 2009). 광화문 광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징적이며, 대표적인 광장이다. 광화문 광장은 국가적인 큰 행사와 여러 가지 소규모 문화 행사를 포함하여 정치적인 행위까지 아주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면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광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광장이라는 공간이 담게 되는 중요한 기능과 표상 중 하나인 정치적인 행위는 광화문 광장에서 억압되거나 선별적으로 수용된다.

한 가지 예로 2015년 5월 1일과 2일에 걸쳐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났던 '노동절 행사 및 시위를 겸한 세월호 추모 집회'를 들 수 있다. 시위 및 집회자들과 공권력의 수행자로서의 경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이러한 충돌은 서로에게 피해를 가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광화문 광장의 이용과 통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사회적 견해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의 사용 방식은 임의적인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특정한 구조의 체계의 영향을 받는다. 광화문 광장의 경우, 주변부의 공간적 맥락과 법적인 문제, 사회구조상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와 현실들이 얽혀 광장에서의 사건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는 광화문의 과거부터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갖 추기까지의 개괄적인 역사를 살펴보고, 르페브르가에서 전개한 '공간생산이론'을 틀로 적용하여 광화문 광장이 생산물로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갈등을 공간 생산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광화문 광장의 갈등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고찰

「공간의 생산」에서 르페브르는 '공간을 생산물로 바라보면서, 공간이 생산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공간은 사회적 현상과 동떨어진 용기로서의 인지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은 사회적 관계를 내포한다고 하였으며, 도시 공간을 어떤 시기에 사회적인 활동에 의해 점유되어, 거기에 맞게 조정되고 만들어진 공간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활동, 즉 행위들의 결과로 공간이 생산된다고 했다. 그리고 생산된 공간은 공간위의 활동에 또다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Lefèbvre, 1974).

르페브르는 공간의 생산과정을 정형적으로 도식화하고 있지는 않다. 공간의 물리적, 사회적, 정신적 특성에 따라 공간의 생산 과정은 다양하게 된다. 하지만 이론의 전개 과정에서 삼중의 변증법을 도입하면서 공간적 실천, 공간재현, 재현공간의 개념을 제시한다(표 1 참조).

세 가지 공간은 변증법적인 구조를 통해 공간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방법론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

표 1. 공간의 세 가지 층위

공간적 개념	공간적 실천	공간 재현	재현 공간	
주체적 개념	지각된 것	인지된 것 인식된 것	체험된 것	
성격	생산과 재생산 특화된 장소, 고유한 공간의 총체	학자들이나 계획 수립자들, 도시계획가들, 공간을 '구획 짓고', '배열하는' 기술 관료들의 공간	공간에 따르게 마련인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체험된 공간,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공간	
예시	중세시대	공동체와 이웃한 농촌마을, 수도원과 성, 도시로 가는 도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에서 비롯되어 기독교에 의해서 변형된 개념	마을 교회와 묘지, 시청과 들판 혹은 광장이나 도시의 망루 등을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시킴. 우주적인 재현을 모방함
	베네치아	운하의 공간, 거리의 공간	도시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어느 곳에서나 연상되는 바다	도시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도시의 어느 곳에 서나 연상되는 바다
	프랑스	대저택과 기념물적인 건축물의 축조	원근법	예술가들, 화가들이 각자 방식을 통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표현
토스카나 지방	소작인 주택과 지주 대저택을 잇는 길과 도농 간 관계로 하나의 공간 형성	원근, 소작농제, 도시 부르주아 계급의 농업투자와 그에 맞게 구상된 설계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형성된 미술학파인 시에나 화파 작품	

자료: Lefèbvre, 1974: 80-262

라 공간의 존재론이 되는데, 가능한 공간적 관계와 불가능한 공간적 관계를 구분하는 수단(역진적-전진적 방법)일 뿐만 아니라, 공간의 다층적인 운동을 표현하고, 그 실현을 해명하는 원리이기 때문이다(신승원, 2014).

르페브르는 이렇게 생산되는 공간의 양상을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특성에 따라 절대공간, 추상공간, 모순공간, 차이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의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른 공간적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 자본주의 체계의 정립과 함께 나타나는 추상공간의 지배는 '공간생산이론'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절대공간의 상실과 추상공간의 지배는 필연적으로 모순공간을 발생시키며, 차이의 공간은 대안적 공간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공간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생산되는 공간의 특성별 구분

	성격	존재 형태
절대공간	자연, 근본적, 특권적	사원, 궁궐, 추모 공간
추상공간	폭력적, 자본주의, 정치적, 금지된, 이중적, 상징적,	교환가치와 가치 형태 그 자체, 사회적으로 존재
모순공간	추상공간의 모순이 드러남	사회의 모순이 공간의 모순을 만들어 내며, 공간의 내부와 층위에 드러남
차이공간	공간재현과 재현공간의 차이가 인정됨	드러난 갈등이 차이를 생산함으로써 해소되는 공간

자료: Lefèbvre, 1974: 339-564

본 연구에서 광화문 광장의 공간적 변화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해당 시대의 공간적 실천, 공간재현, 재현공간을 살펴 광화문 광장의 공간이 그 시대에 어떻게 생산된 공간이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에 이르러 어떻게 생산된 공간이며, 어떤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공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광화문 광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생산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I. 광화문 광장의 공간적 변화

#### 1.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개국하면서 이상으로 삼은 통치원리는 군신협치제였다. 군신협치제의 원리는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과 육조대로에서 시각적으로 재현되었다(하상복, 2009). 즉, 통치이념을 구현하고, 실현되는 공간이었다. 군신협치제, 풍수 등은 공간재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경복궁이 창건되고, 육조거리가 생성된 것은 공간적 실천에 해당한다. 육조거리 공간의 공간재현과 공간적 실천을 통하여 이 공간의 상징과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이

러한 방식으로 생산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주체간의 관계는 광화문과 육조거리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관계로, 이 공간은 각각의 관계를 매개해 주는 공간으로서 존재하였다.

현재의 광화문 광장에 해당되는 광화문과 육조대로는 인지된 공간으로 공간재현의 성격이 지배적이었지만, 조선왕조를 거치며 상징적인 표상으로서의 체현된 재현공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지배의 이념이면서 일상성의 문화를 규정한 유교적 사회에서 육조대로는 기념적인 절대공간의 성격을 지닌다.

#### 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광화문 일대는 일제 식민통치의 상징 전략에 이용된다. 이전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 그 중에서도 중심을 차지하며, 왕권의 상징하는 근정전을 가려 총독부를 건립하였다. 이로써 경복궁의 상징성을 철저하게 파괴하였고, 대한제국의 멸망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식민권력을 과시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축결정을 하게 된다(하상복, 2009: 42, 재인용). 일제가 이축을 하면서까지 광화문의 위치를 옮기고자 했던 것은 권력의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전 권력의 상징인 경복궁과 광화문에 대한 공간의 재생산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이와 같은 방식의 공간 생산은 왕조의 멸망과 일제의 지배를 공간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진행되었던 조선물산공진회<sup>1)</sup>와 같은 큰 규모의 행사들은 경복궁 내의 넓은 부지에서 진행되었다(문화재청, 2002). 또한 육조거리에서는 시위대의 군사훈련이 행해졌다. 과거의 절대공간을 파괴하는 과정에서는 강압적인 공간재현의 전략이 주가 되었으나, 다양한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생산하면서 일상적 삶으로 침투되는 과정이 수반되었다.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전차 노선을 만들어지는데, 대부분이 한일병합조약 이후에 생성된다(이순우, 2011). 이 노선들 중 한 노선이 육조거리를 지난다. 이때부터 육조거리는 도로의 형태를 띠게 된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 근대화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화문 앞의 공간은 추상공간의 특성이 나타난다. 르페브르의 추상공간의 비판적 관점이 60~70년대 자본주의적 경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공간을 정확의미의 추상공간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이 시기의 공간 개발 방식이 식민화를 통해 이식된 근대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추상공간의 등장하는 초기적 단계로 볼 수 있다.

#### 3. 한국전쟁 이후의 세종로 개발

르페브르는 전쟁 공간이 여러 세기를 지나는 동안 사회적 공백으로 전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고 가득 찬 공간, 즉 자본주의의 요람이 되었다고 말한다(Lefèbvre, 1974). 한국전쟁

이후 전쟁으로 파괴된 서울은 자본주의적인 축적의 공간을 표상하게 되었으며, 추상공간으로 재생산되었다. 광화문 광장 공간에서는 뚜렷한 공간적 변화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광화문 일대의 이용 변화뿐만 아니라 물리적 변화까지 포함한다.

광화문 앞 공간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 이후 광화문통에서 세종로로 바뀌었고, 자동차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되면서 1960년대에 전차가 사라지면서 약 백 미터 정도의 폭에 광활한 도로로 변화하였다(이순우, 2011). 이때에 세종로가 오늘의 도로 모습을 갖추는 형태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서울 도심을 일으켜 세우려는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당시 전쟁 이후 토목건설을 경제회복의 발판삼아 이용하였고, 토목건설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도로건설이 서울 도심들에서 시행되었다. 세종로가 이 시기에 생산되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아래에서 공급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도로들이 건설이 되고 고층 빌딩이 세워지면서 세종로는 추상공간의 특성이 완벽하게 나타난다. 광화문의 재건과 세종로의 확장은 당시 권력과 경제이념의 기호를 포함하고 있다.

자본주의적인 효율의 논리가 지배적인 세종로는 경제 개발의 이념적인 공간재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지배적 이념을 강화하는 장치들을 담게 된다. 대표적으로 민족정신과 호국의 이념을 담은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종로의 지배적인 기호를 부여하는 장치로서 기능한다.

이후 광화문 일대 공간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는 1990년대이다. 김영삼 정부가 조선총독부로 사용되었던 건물을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박정희 정권에서도 그랬듯이 문민정부 역시도 정부의 이념을 반영한 공간을 생산해간다. 구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경복궁의 상징성을 회복하고자 하며, 더불어 과거 세종로가 권력의 정당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던 상징성에 대한 대항으로 대대적인 문화행사를 세종로에서 진행한다(동아일보, 1995). 광장이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광장의 기능 중 일부를 세종로가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광장 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서의 세종로 이용과 다른 형태의 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공간의 재생산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0년대에는 광장으로서 세종로 모습을 갖추갈 준비를 시작한다.

#### 4. 현재의 광화문 광장(2009.8.1. 개장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들의 문화적, 정치적 활동의 무대 공간, 즉 광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광장의 조성을 계획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직 당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의 계획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때 광화문 광장의 조성 기준을 '조망성'과 '역사성'에 두었다. 도시 브랜드 가치를 만들기 위해 광화문 광장 조성에서

조망성과 역사성은 아주 적절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중앙배치 안이 광화문 광장의 조성 기준을 제일 충족시키며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였다(연합뉴스, 2006). 광화문 광장 기본 구상 및 설계는 아이디어 현상설계와 터키 설계 공모를 거쳐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시공을 진행하여 오늘날의 광화문 광장이 조성되었다.

광화문 광장은 공간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청와대와 근접하여 있고, 국가적 광장이라는 부분에서 정치적 집회와 시위의 목소리를 정부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낸다는 상징적 의미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적 이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현재 광화문 광장의 이용은 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어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불허 또는 허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가의 세부적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며,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바로 시장이 정한 세부적 규칙이다. 하지만 법적 기준의 적용에는 해석의 여지가 따르기 때문에 광화문 광장은 공간 재현의 전략에서 자유롭지 않다.

세종로에서 광화문 광장으로의 변화는 추상공간에서 모순공간이 나타나고 차이공간으로 향하기 위한 긍정적 공간의 재생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광화문 광장 조성 이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선별적 통제는 또 다른 모순공간의 양상을 드러내며 더욱 복잡한 층위에서 공간재현의 전략과 이를 실천을 통해서 거부하려는 전략,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행위의 충돌을 통해 새로운 의미와 기호를 지닌 재현공간의 출현을 나타나게 한다.

## IV. 결론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시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이다. 여러 가지 시각으로의 분석이 있어 왔지만, 단편적인 부분으로만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광화문 광장 자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시각으로의 분석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보고자 하는 시도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공간의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광화문 광장의 생산 경로를 재탐색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원인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현재까지 광화문 광장에 대한 공간적 변화를 르페브르의 관점을 통하여 개괄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각도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광화문 광장의 설계를 조명해 보고, 공간의 생산의 관점에서 조경 설계가 차이공간을 지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주 1.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일제가 일부 건물을 훼손하거나

수축하여 경복궁에서 전국의 물품을 수집·전시한 대대적인 박람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참고문헌

1. 동아일보(1995.08.15) 세종로 오만참가 경축행사.
2. 문화재청(2002)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 계획보고서.
3.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 신승원(2014) 르페브르의 '공간 건축술'. 시대와 철학 25(4): 209-241.
6. 연합뉴스(2006.12.27) '광화문광장' 조성 세부계획과 전망.
7. 이승우(2011.04) 근대의 거리를 달리는 새로운 교통수단, 전차. 월간 문화계 사랑.
8. 하상복(2009) 광장과 정치. 기억과 전망 21: 36-74.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0. Franco Mancuso et al.(2007) Squares of Europe, Squares for Europe. 장택수(역). 생각의 나무. 2009.
11. Lefèbvre(1974) (La)production de l'espace. 양영란(역). 서울: 에코리브르. 2011.